

한국어 ‘술어 + -대’에 관한 연구

조세연 (호남대학교)

임경섭 (동신대학교)

Cho, Sae-Youn and Lim, Kyung-Sup. 2002. A Study on ‘Predicate + -Tay’ in Korean.¹⁾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3), 101-116. It has been generally assumed that the strings such as ‘predicate + -tay’ and ‘predicate + -lay’ can be derived from some abstract underlying forms in terms of deletion and contraction operations. This would be desirable if this deletion and contraction analysis produces a proper set of the strings at issue. However, a careful examination of ‘predicate + -tay’ reveals that it is never easy to produce a proper set of the strings under the previous approach. To avoid such difficulties, we claim that contrary to the previous analysis, the strings such as ‘predicate + -tay’ should be a complex word like a predicate with the causative morpheme, -i. The lexical analysis proposed here enables us to correctly predict the grammaticality of sentences including the strings. Specifically, this analysis can provide a neat explanation for not only th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but also the phonologic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of ‘predicate + -tay’ type. Furthermore, this lexical analysis enables us to maintain the Lexical Integrity Hypothesis by Bresnan & Mchombo (1995) in analyzing the phenomena that seem to be hard to explain without positing unmotivated operations and functional categories.

주제어(key words): 술어 + ‘-대’, 생략 및 축약 연산, 어휘분석, 어휘 완전성 가설, 기능 범주,

1. 서론

한국어처럼 풍부한 형태론 체계를 갖는 언어에서는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1) 본 논문은 The 2002 LSK International Summer Conference의 Workshop에서 발표된 ‘The Complex Nature of ‘Predicate + -Tay’ in Korean’라는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Williams (1997) 참조). Bresnan & Mchombo (1995)에서 어휘 완전성 가설(Lexical Integrity Hypothesis)²⁾이 제안된 이래로, 핵어중심 구구조 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HPSG이라고 함)과 같은 현행 통사 이론들은 소위 영어 주어-조동사 축약구문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현상을 설명하는데 이 가설을 유지하려고 한다. Bender & Sag (2002)은 전통적인 분석에 반대하며, *I'll* 또는 *we'll*을 두 단어 사이의 축약 과정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한 단어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한국어에서도 ‘술어 + -대’가 두 단어, 즉 술어와 ‘다고 해’(‘say’)의 축약의 결과로 분석되어 왔으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올바른 분석으로 믿어졌다. ‘술어 + -대’에서 ‘-대’는 화자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이체형(variants)을 가질 수 있다. 예문 (1)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가 평서문(declarative) 인용문을 사용할 때 ‘-대’가 나타난다. 화자의 의도에 의존한 ‘-대’의 이체형 가운데, 예문 (2)의 ‘-래’는 명령문에, 예문 (3)의 ‘느내’는 의문문에 사용된다.

- (1) 철수가 영희가 (잘) 걷는데.
- (2) 철수가 영희에게 (잘) 걸으래.
- (3) 철수가 영희가 (잘) 걷느내?

‘술어 + -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통문법에서는 이런 문자열(string)은 두 개의 독립된 단어, 즉 술어와 ‘라고 -해’ 사이의 축약의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심지어 변형문법 학자들도 이런 문자열이 통사부 단계나 PF에서 생략과 축약에 의하여 쉽게 생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고영근 (1994), 최태경 (2001) 참조)

우리는 이전 분석과는 반대로 ‘술어 + -대’가 한 단어라고 주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는 매립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술어와 매립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인용법(reported speech)의 문장 종결 표지어로서의 ‘-대’로 구성된다. 이 주장을 지지하고 이전 분석을 논박하기 위하여, 우리는 몇 가지 음운론 및 형태론적 증거를 제시하고, 그런 단어의 통사적 및 의미적 속성들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도록, 단어들이 현행 HPSG의 어휘부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³⁾

2) 어휘 완전성 가설(Lexical Integrity Hypothesis): 통사규칙은 단어 구조를 분석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다.(Syntactic rules neither analyze nor alter word structure.)

3) 김종복 (1996)은 한국어는 교착적(agglutinative) 형태론과 접사화(affixation)를 어휘형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며, 복잡한 파생과정과 굴절과정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명사화 접사와 동사 접사에 대한 2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접미사들이 핵어 이동(head movement)과 같은 통사적 작용에 의해서 통사부에서 어간이나 어미들과 결합한다는 통사적 견해(syntactic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우리는 ‘술어 + -대/-래/-느내’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 우리는 기존 분석방법인 ‘생략과 축약접근법’이 문자열 ‘술어 + -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고, 이 분석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한다.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이 보이는 생략과 축약의 분석법 대신에, ‘술어 + -대’에 대한 핵어중심 구구조문법에서의 어휘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분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한다. 4장에서 우리는 이 분석의 결과와 추후 연구를 위한 남은 문제점을 제시하며 논문을 결론짓는다.

2. ‘-대’의 특성

‘-대’는 평서문에서 ‘say’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데’는 회상시제 형태소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고 널리 알려졌다. 예를 들면, 예문 (4)에서 ‘-대’는 비록 정보제공자 ‘철수가’ 수의적이라 할지라도, 화자가 들은 것에 관한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된다. 반면에 예문 (5)에서 ‘-데’는 화자가 경험자로서 과거의 한 사건을 회상하여 표현할 때 사용된다. ‘-대’는 정보제공자로서 명사구 ‘철수가’를 추가하여 향가(valence)를 증가할 수 있는 반면에, ‘-데’는 향가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대’를 포함한 자료에만 초점을 맞춘다.

(4) (철수가) 영화가 (잘) 걷는데.

(5) (*철수가) 영화가 (잘) 걷데.

한국어에서 ‘술어 + -대’에 관한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다. 음운론 및 형태론과 관련된 몇 가지 속성은 이 문자열이 한 단어라는 증거처럼 보이나, 통사론 및 의미론과 관련된 속성들은 이 문자열이 한 단어가 아니라는 증거처럼 보인다. ‘술어 + -대’의 이런 복잡한 성질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이 문자열의 여러 가지 기본 속성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세연 (2001) 참조)

2.1. 음운론 및 형태론 속성

‘술어 + -대’에서 ‘-대’는 바로 앞의 음소(phoneme)에 의존하여 음운과정을 겪

view)와 단어들은 단순히 어휘부에서만 형성된다는 어휘론적 견해(lexicalist view)가 있다고 하였다.

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의 ‘ㄷ’음이 어간(stem)과 시제(tense)로 구성된 술어에서, 자음 긴장 형태소 바로 뒤에 나타날 때면 (6b)의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아 예문 (6a)처럼 경음 ‘ㄸ’이 된다.

- (6) a. 걸-었-대 → 걸-었-때
 b. /t/ → [tt] / C_V

Cho & Sells (1995)에 따르면, 시제어미 ‘었’이나 문장종결어미 ‘다’ 등의 요소들은 단어의 부분들이어서, 통사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이들은 어휘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음화현상은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고, 합성어인 경우에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단어가 구 수준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음화의 음운현상의 존재는 ‘술어 + -대’가 한 단어임을 확인시켜준다.

형태론적으로, ‘-대’는 술어와 ‘-대’ 사이에 어떤 요소도 끼어들 수 없는 의존형태소(bound morpheme)처럼 보인다. ‘-만(only)’ 또는 ‘-도(also)’와 같은 한정접사(delimiters)는 예문 (7)처럼 술어와 ‘-대’ 사이에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접사가 통사적으로 예문 (8a)처럼 복합술어(complex predicate)나 예문 (8b)처럼 2개의 술어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 (7) *걸-었-(만/도)-대
 (8) a. 걸어-{만/도} 보아
 b. 바보라고-{만/도} 생각해

Sells (1998)의 주장을 따라서, 술어와 ‘-대’ 사이에 한정접사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문자열 ‘술어 + -대’가 한 단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게다가, 이 문자열의 술어는 형태소 ‘-대’, ‘-느내’, 또는 ‘-래’에 의존하여 모양이 달라진다. 예문 (9b,c)와 예문 (10b,c)처럼, 형태소 ‘-대’와 ‘-느내’는 술어가 술어어간+과거/현재시제(v-stem + past/future tense)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시제에 관한 한, 예문(9a)의 형태소 ‘-대’는 술어어간+현재시제(v-stem + present tense)에 부착되는 반면에, 예문 (10a)의 ‘-느내’는 술어어간에 부착된다. 그러나 예문 (11)의 형태소 ‘-래’는 술어어간에만 부착되어야 한다.

- (9) a. 걷-는-대 (어간 + 현재)
 b. 걸-었-대 (어간 + 과거)

- c. 걷-겠-대 (어간 + 미래)
- (10) a. 걷-느내 (어간) (참조. *걷-는-느내)
- b. 걸-었-느내 (어간 + 과거)
- c. 걷-겠-느내 (어간 + 미래)
- (11) 걸으-래 (어간) (참조. *걷-는-래, *걸-었-래)

‘술어 + -대’에 대한 어떤 분석도, 위에서 언급한 이 문자열의 음운론 및 형태론 속성들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⁴⁾

2.2.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

‘술어 + -대’에서 형태소 ‘-대’는 이 문자열의 술어의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에 영향을 미치어 단문(mono-clausal)의 의미를 복문(bi-clausal)의 의미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예문 (12a)에서 자동사 ‘걷는-’은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선 주어 명사구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문 (12b)처럼 만약에 ‘-대’가 술어에 부착되면, 전체 문장의 의미는 복문이 되고, ‘-대’를 갖는 문장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정보 제공자로서 주격 표지어를 갖는 부가적인 명사구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된다. 더 나아가 정보 제공자로서의 명사구는 3인칭이어야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예문 (13a,b)처럼 정보 제공자로서의 명사구가 3인칭이 아닌 1인칭이나 2인칭인 경우에는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 (12) a. 영화가 (잘) 걷는-다.
b. (철수가) 영화가 (잘) 걷는-대.
- (13) a. *내가 영화가 (잘) 걷는-대.
b. *네가 영화가 (잘) 걷는-대.

항가를 증가시키고 의미적 변화를 야기하는 형태소 ‘-대’의 속성을 공유하는, ‘술어 + -래’에서의 ‘-래’는 예문 (14)처럼 술어의 주어 명사구(‘영화’)가 여격 표지어(dative case-marker)(‘-에게’)를 가지도록 강요한다. 명사구 ‘영화’가 술어 ‘걷는-’의 주어이지만, ‘-래’가 술어에 부착될 때 주격 표지어(nominative case

4) 남기심, 고영근 (1994)은 국어의 활용어미는 용언의 일부로서 어간과 더불어 한 단어를 이루지만, 그 문법적 기능은 문장 또는 용언구 전체에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날씨가 풀리면 여행을 떠나겠다.’에서 ‘-면’은 동사 ‘풀리면’의 한 부분이지만, ‘날씨가 풀리-’ 전체를 조건절이 되게 한다.

-marker)('가) 와 더불어 여격 표지어('에게')도 가질 수 있다.

(14) 철수가 영희에게(/?)가 걸으-래.

'술어 + -대'와 같은 문자열에 대한 분석 이론이 적절하려면, 위에서 언급된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들이 설명되어야 한다.

3. 분석법

3.1 기존 분석법: 생략과 축약 접근법

'술어 + -대'와 같은 문자열은 생략(deletion)과 축약(contraction)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는 의견일치가 있다. 심지어 전통적인 한국 문법학자들은 '술어 + -대'는 '술어+시제+평서문 종결표지어('다')+보문자('고')#해-'에서 '-고'를 생략하고 '-다'와 '해-'를 축약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고 기술해 왔다. (고영근 (1994), 최태경 (2001) 참조) 이런 생략 접근법은 2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지치기(pruning)에 기초를 둔 통사적 생략 접근법과 어떤 post-lexical 음운규칙을 가정한 PF 생략접근법이 있다. '술어 + -대'와 같은 문자열의 구조를 생략과 축약 접근법의 이론에 의하여 표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의 사소한 차이점은 있지만, 그들은 생략과 축약 연산(operation)을 가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략 접근법은 예문 (1)을 위하여 (15a)와 같은 구조를 가정하고 (15b)처럼 어떤 생략과 축약 연산을 통하여 '-다-고#해-'로부터 '-대'를 도출한다.

- (15) a. [철수-가 [영희-가 (잘) 걷는-(다-고)] 해-]
 b. -다-고 # 해- -> -대 (여기서 #는 S 경계를 상징한다.)
 (생략과 축약에 의하여)

동일한 추론에 따라, '술어 + -래'도 아래의 예문 (16a)에서 생략과 축약 연산에 의하여, '술어+명령문 종결표지어('라')+보문자('고')#해-'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 (16) a. [철수-가 [영희-에게 (잘) 걸으-(라-고)] 해-]
 b. -라-고 # 해- -> -래 (생략과 축약에 의하여)

위에서 살펴 본 생략 접근법은 '술어 + -대'가 복문의 의미를 갖는 이유에 대해

훨씬 간단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직관적으로 좋은 해결책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른다.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을 생략 접근법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점이 있지만, ‘술어 + -대’가 보이는 음운론 및 형태론 속성은 설명되지 못한 채 남는다. 게다가 이 접근법의 가장 심각한 단점은 생략과 축약 연산처럼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아래의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술어 + -대’와 같은 문자열의 정확한 기저형(underlying form)은 무엇이나 이고, 둘째는 이런 문자열에 대한 올바른 음운 규칙은 무엇일까이다.

무엇보다도 생략과 축약 연산을 이용한 이론들은 ‘술어 + -대’의 정확한 기저형을 제시해야 한다. 예문 (15a)에서의 문자열 ‘걷는-대’의 표면형 ‘술어 + -대’가 기저형 ‘술어+시제+평서문 종결표지어(‘-다’)+보문자(‘-고’)#해-’에서 ‘-고’를 생략하고 ‘-다’와 ‘해-’를 축약함으로써 도출하는 분석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문 (17a)에서 문자열 ‘걷는-다-대’는 어떻게 생성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17) a. 철수-가 영희-가 (잘) 걷는-다-대.
b. -다-고 # 해- -> -다-대

(15b)의 ‘걷는-대’와 (17b)의 ‘걷는-다-대’는 모두 가능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둘 다 생략과 축약 접근법에 의하여 기저형 ‘-다-고 # 해-’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걷는-다-대’는 위의 생략 접근법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와 ‘해-’가 축약 연산을 통해서 ‘-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는 곧장 ‘술어 + -대’의 올바른 기저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생략 접근법에 의하면, ‘술어 + -느내’가 생략과 축약에 의하여 ‘술어+느냐+고 # 해-’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가정하지만, 예문 (18)의 문자열 ‘느냐-고 # 해-’는 예문 (19)처럼 축약될 수 없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접근법은 ‘술어 + -대’의 적절한 집합(proper set)을 생성하기 위한 정확한 음운규칙을 가정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 (18)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걷-(느냐-고)] 해-있-(다-고)] 해.

- (19) 걷-느냐-고 # 해-었-다-고- # 해-
- a. *걷-느내-었-대
 - b. 걷-느냐-고-해-었-대
 - c. *걷-느내-었-다-고-해

생략과 축약 연산이 한국어에서 ‘술어 + -대’와 같은 문자열의 적격한 집합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어 왔지만, 예문 (17-19)의 경험적 자료에 의하면, 그 가설에 대한 수많은 불필요한 질문이 생겨난다. 그런고로 이런 가설에 기초를 둔 분석들은 그런 질문에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분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통사론 또는 PF 단계에서의 생략과 축약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만 한다.

3.2 핵어중심 구구조문법에서의 어휘분석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술어 + -대’가 보이는 기본적인 속성들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문체의 문자열이 한 단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음운론 및 형태론 속성과 이 주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이 있다. ‘술어 + -대’가 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가설에 반대하여, 우리는 이 문자열이 한 단어라고 주장한다. 이 문자열이 한 단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술어 + -대’의 음운론 및 형태론 속성들은 우리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생략과 축약의 접근법과는 달리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술어 + -대’의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대’는 부가적인 명사구 하나를 요구한다. 둘째로, ‘술어 + -대’는 복문의 의미를 지닌다. 셋째로, ‘술어 + -래’는 이 문자열에서 술어의 주어로서의 명사구가 여격 표지어를 갖도록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이 존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3가지의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들을 설명하는 제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HPSG의 틀 안에서 ‘술어 + -대’에 대한 어휘분석을 제안한다. Bratt (1996)이 지적하였듯이, 예문 (20b)의 한국어 사역형 형태소 ‘-이’도 3가지의 중요한 속성을 보인다. 첫째로, ‘-이’는 결합될 어간(stem)의 ARG-ST에서 CAUSER로서 부가적인 명사구(NP)를 하나 요구한다. 둘째로, ‘술어 + -이’는 복문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세째로 ‘술어 + -이’는 문자열에서 술어의 주어로서 명사구(NP)가 주격 표지어 보다는 여격 표지어를 갖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예문 (20a)의 비사역형 문장에서의 술어 ‘떡-’과 비교할 때, 이에 대응하는 사역형 예문 (20b)의 ‘술어 + -이’는 CAUSER로서의 또 다른

한 개의 명사구 ‘철수가’가 필요하다. 예문 (20b)의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술어 + -이’는 복문의 의미를 가지고, 술어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CAUSEE로서의 명사구 ‘영희-’는 주격 표지어(‘-가’)가 아닌 여격 표지어(‘-에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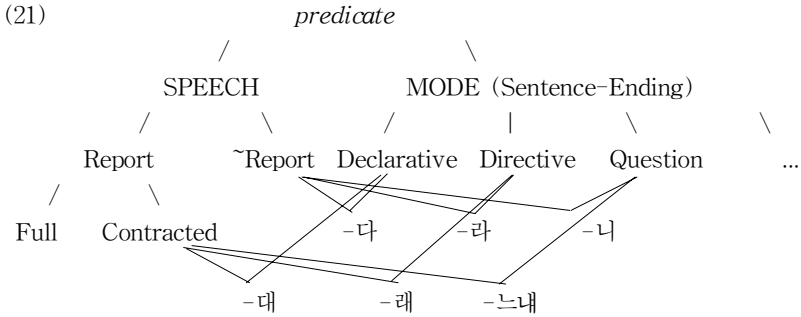
- (20) a. 영희-가 밥을 먹-었-다.
 b. 철수-가 영희-에게/*가 밥을 먹이었다.

어휘 사역구문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Bratt (1996)은, Hinrichs & Nakazawa (1994) 또는 Chung (1998)의 논항 유인(Argument Attraction)을 채택하여, ARG-ST에서 CASE 값에 관한 정보와 의미론의 CONTENT에 복문의 의미에 관한 정보를 명세하는 사역형 어휘소 (lexeme)를 제안하였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어휘부에서 어휘 사역구문의 속성들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위에서 관찰하였듯이, ‘술어 + -대’와 ‘술어 + -이’ 사이의 놀랄 정도로 유사한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들은, 우리에게 둘 다 어휘 접근법에 의하여 취급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어휘, 구, 절, 심지어 구문에 이르기까지의 유형 위계(type hierarchy)와 제약(constraint)에 기초를 둔 제약기반 어휘주의 문법이론인 HPSG 틀 안에서 이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21)처럼 SPEECH와 MODE의 2 영역(dimensions)을 제안한다. 이 다중 상속 위계(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에 기초하여, 보고형 축약 문장 종결 표지어로서 ‘-대’는 생성될 수 있다. SPEECH의 하위 유형으로 보고형(*Report*) 유형과 보고형이 아닌(~*Report*) 유형으로 분류되고, 보고형(*Report*) 유형은 또 축약형(*Contracted*) 유형과 비축약형(*Full*) 유형으로 하위 분류된다. 문장종결표지를 나타내는 MODE의 하위 유형으로 평서문의 *declarative* 유형, 명령문의 *directive* 유형, 의문문의 *question* 유형으로 하위 분류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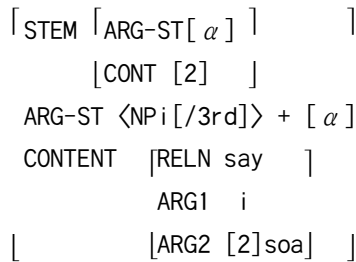
5) 한국어의 특성 가운데, 동사가 통사 구조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다, -어라, -느냐’ 등의 법 접사(Mood Affix)나, ‘-게, -지, -고, -어’ 등의 보문자 접사(Complementizer)와 혹은 ‘-은, -는, -을’ 등 관형 수식 접사(prenominal modifier)에 의해서 굴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굴절접사들이 함께 첨가될 때에는 엄격한 순서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이들 접사들은 상호 배타적인 경우가 있다. HPSG에서는 의미구조에는 아래의 3가지의 자질이 있다고 간주한다.

MODE {proposition, question, directive, reference, none}
 INDEX {index, none}
 RESTR list(predication)



일단 이런 다중 상속 위계가 주어진다면, 술어에 보고형 축약 평서문 종결표지어 ‘-대’가 부착된 ‘술어 + -대’는 (22)처럼 *reported-contracted-declarative-lexeme*으로서 표시될 수 있다. 이때의 논항 구조(ARG-ST)는 수의적인 3인칭 정보제공자 명사구 (NP_i)와 어간의 논항 구조의 값([α])의 *append* 함수로 이루어진다. 또 의미내용(CONTENT)은 관계(RELN)가 *say*이며, 논항1의 값이 i이고 논항2의 값이 어간의 의미내용 [2]soa인 자질구조를 갖는다.

(22) *reported-contracted-declarative-lexeme* =>



같은 방식으로, 술어에 보고형 축약 명령형 종결표지어 ‘-래’가 부착된 ‘술어 + -래’는 (23)처럼 *reported-contracted-directive-lexeme*으로서 어휘부에서 표시될 수 있다. 이때 논항 구조(ARG-ST)는 3인칭 정보제공자 명사구 (NP_i)와 어간의 논항 구조 값 가운데 첫 번째 명사구의 CASE를 *dative*로 요구하는 명사구 ([α] <NP_j[dat]...>)의 *append* 함수로 이루어진다. 또 의미내용(CONTENT)은 관계(RELN)이 *order*이며, 논항1의 값이 i이고, 논항2의 값이 j이고, 논항3의 값이

어간의 의미내용 [2]soa인 자결구조를 갖는다.

(23) *reported-contracted-directive-lexeme* =>

[STEM ARG-ST [α]]
 CONT [2]
 ARG-ST<NP_i [/3rd]>+[α]<NP_j [(nom)/dat]...>
 CONTENT [RELN order]
 ARG1 i
 ARG2 j
 [ARG3 [2]soa]]

이러한 것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술어 + -대’와 같은 문자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분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문제의 문자열 가운데 2가지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 예문으로, ‘술어 + -대’의 한 유형으로서 ‘걷는-대’를 갖는 예문 (24)는 수형도 (25)처럼 표시될 수 있다.

(24) (= (1)) 철수가 영희가 (잘) 걷는-대.

(25) S
 / \
 [3]NP[3rd] VP[ARG-ST<[3]NP[3rd]>]
 | / \
 철수가 [1]NP[nom] V[ARG-ST<[3]NP[3rd],[1]NP[nom]>] (= (26))
 | |
 영희가 걷는대

우리의 어휘분석에 의하면 술어에 보고형 축약 평서문 종결표지어 ‘-대’가 부착된 ‘걷는대’는 *reported-contracted-declarative-lexeme*의 한 유형으로서 (26)의 제약을 갖는다. (26)의 어휘정보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v-tense-stem* 유형의 어간을 선택하는 이 보고형 축약 평서문 종결표지어는 논항 유인에 의하여 새로운 ARG-ST를 갖는다. 즉 새로운 논항 구조는 3인칭 정보제공자로서 명사구 (NP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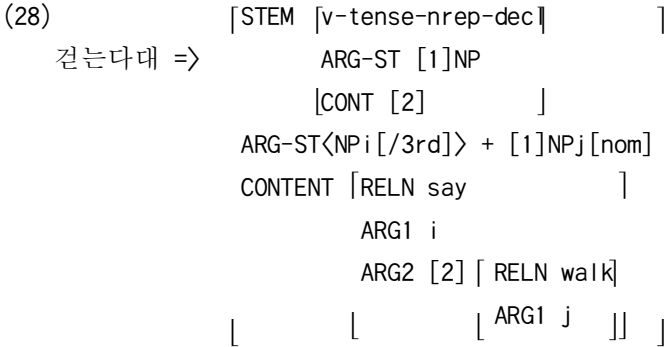
와 어간의 논항 구조의 값 ($NP_j[nom]$)의 *append* 함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문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의미내용(CONTENT)은 관계(RELN)가 *say*이며, 논항1이 *i*이고, 논항2가 어간의 의미내용을 값으로 취하는 자질구조이다.⁶⁾ 이것이 바로 ‘술어 + -대’의 통사적 및 의미적 속성이다.

(26)		[STEM [v-tense-stem]	
	걷는대 =>	ARG-ST [1]NP	
		[CONT [2]]	
		ARG-ST<[3]NPi [/3rd]> + [1]NPj [nom]	
		CONTENT [RELN say]	
		ARG1 i	
		ARG2 [2][RELN walk]	
		[[[ARG1 j]]]	

동일한 추론으로, ‘술어 + -대’의 또 다른 유형인 예문 (27)의 ‘걷는-다-대’에서 ‘-대’가 *v-tense-nonreported-declarative* 유형의 어간에 부착되어 어휘소가 (28)처럼 실현된다면, 우리의 어휘 분석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28)의 어휘정보에서 *v-tense-nrep-decl* 유형의 어간을 선택하는 이 보고형 축약 평서문 종결표지어 ‘-대’는 논항 유인에 의하여 새로운 논항 구조를 갖는다. 즉 새로운 논항 구조는 3인칭 정보제공자로서 명사구 (NP_i)와 어간의 논항 구조의 값 ($NP_j[nom]$)의 *append* 함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문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의미내용(CONTENT)은 관계(RELN)가 *say*이며, 논항1이 *i*이고, 논항2가 어간의 의미내용과 동일한 값([2])을 취하는 자질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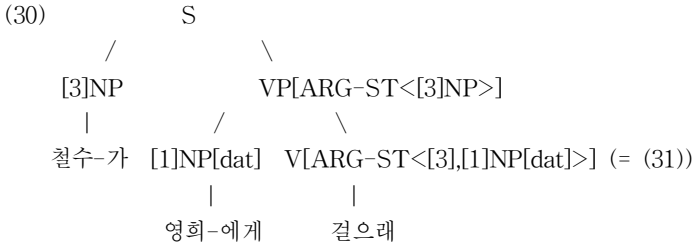
(27) (= (17)) 철수가 영희가 (잘) 걷는-다-대.

6) 본 인용법의 어휘들은 CONTEXT에서 화자가 1인칭인 ‘나’이고 청자가 ‘누구’인가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AVM이 너무 방대하게 보이는 까닭에 생략함.



술어에 보고형 축약 명령문 종결표지어 ‘-래’가 부착된 ‘술어 + -래’의 예로서, ‘걸으-래’를 갖는 예문 (29)는 수형도 (30)처럼 표시될 수 있다.

(29) (= (14)) 철수-가 영화-에게/*가 걸으-래.



(23)의 제약에 의하면, *reported-contracted-directive-lexeme*의 한 유형으로서 ‘걸으-래’는 (31)처럼 실현된다. (31)의 어휘정보가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v-stem* 유형의 어간을 선택하는 보고형 축약 명령문 종결표지어 ‘-래’나 보고형 축약 의문문 종결표지어 ‘-느내’가 논항 유인에 의하여 새로운 논항 구조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복문의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논항 구조에서 3인칭 정보제공자 명사구 (NP₃)와 어간의 논항 구조의 값인 명사구(NP_j)의 *append* 함수로 이루어진다. 이때 어간의 논항 구조의 값으로 취한 명사구의 CASE의 값이 주격 표시어가 아니라 여격 표시어를 가져야 한다. 또 의미내용(CONTENT)은 관계(RELN)가 *order*이며, 논항1의 값은 i이고, 논항2의 값은 j이고, 논항3의 값은 어간의 의미내용의 값과 동일한 [2]soa 이다. 이는 한국어의 ‘술어 + -대’의 통사적 및 의미적 속성과 일치한다.

(31)		[STEM [v-stem]]	
	걸으래 =>		ARG-ST [1]NP				
			[CONT [2]]		
			ARG-ST<[3]NPi[/3rd]> + [1]<NPj[dat]>				
			CONTENT [RELN order]
			ARG1 i				
			ARG2 j				
			[ARG3 [2]soa]]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어휘 분석이 ‘술어 + -대’와 ‘술어 + -래’와 같은 문자열의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이런 분석이 (21)의 다중 상속 위계에 의한 인용법 방식에 의하여 ‘술어 + -대’가 ‘술어 + -느내’나 ‘술어 + 자대’ 등의 인용법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문자열이 하나의 단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음운론 및 형태론 속성들이 우리의 어휘 분석에서는 간단히 설명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위의 모든 과정들은 어휘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결론

생략과 축약 연산에 의하면, ‘술어 + -대’와 ‘술어 + -래’와 같은 문자열은 어떤 추상적인 기저형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어 왔다. 이런 접근법은 그런 문자열을 포함하는 몇 가지 자료들이 간단한 음운규칙에 의하여 쉽게 생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꽤 직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차적인 결과로서, 이 생략과 축약 접근법은 적어도 한국어에서 통사론과 의미론 사이의 대칭(symmetry)까지 이론적으로 성취하기도 한다. 만약에 생략과 축약 분석이 문제의 문자열의 적절한 집합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이 분석은 바람직한 이론적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술어 + -대’를 좀더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생략 접근법에 의한 이 문자열의 적절한 집합의 생성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 분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술어 + -대’ 유형과 같은 문자열은 사역형 형태소 ‘-이’를 취한 술어처럼 한 단어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주장에 입각한 어휘 분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자열을 포함한 문장의 문법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분석은 ‘술어 +

-대’의 통사론 및 의미론 속성뿐만 아니라 음운론 및 형태론 속성에 대한 산뜻한 설명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 어휘 분석은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연산과 기능 범주(functional categories)를 상정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게 보이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Bresnan & Mchombo (1995)의 어휘 완전성 가설을 우리로 하여금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석을 ‘술어+-대+시제+-대’ 유형의 자료인 ‘먹었대는대’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 형태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어떤 유형들이 이런 반복성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 문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술어 + -대’와 ‘술어 + -래’ 같은 문자열은 하나의 단어라고 주장하며, 여기에서 제안된 어휘 분석이 유사한 문자열의 다양한 속성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영근. (1994). *국어문법의 연구: 그 어제와 오늘*. 탑출판사.
- 김종복. (1996). 한국어의 어휘형성과정의 어휘론적, 제약적 접근. *언어연구*, 14, 83-104.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 남기심, 고영근. (1994).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조세연. (2001). 어휘주의와 구성성분: 형태소 ‘-대’. *언어연구*, 18, 25-36.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 최태경. (2001).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Bratt, E. (1996). *Argument composition and the lexicon: lexical and periphrastic causatives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Bender, E. & Sag, I. (2002). Incorporating contracted auxiliaries in English. In Alex Alsina, Joan Bresnan, & Peter Sells (Eds.). *Grammatical interfaces in HPSG*, (pp. 17-32). Stanford: CSLI Publications.
- Bresnan, J. & Mchombo, S. (1995). The lexical integrity principle: evidence from Bantu.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3: 181-252.
- Cho, S.-Y. & Lim, K.-S. (2002). On the complex nature of ‘predicate + -tay’ in Korean. To appear in *The Proceedings of The 2002 LSK*

- International Summer Conference*.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Cho, Y.-M. & Sells, P. (1995). 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 119-174.
- Chung C. (1998). Argument composition and long-distance scrambling in Korean: an extension of the complex predicate analysis. In *Syntax and Semantics 30: Complex Predicates in Nonderivational Syntax*. Academic Press.
- Hinrichs, E. & Nakazawa, T. (1994). Linearizing AUXs in German verbal complexes. In John Nerbonne, Klaus Netter, and Carl Pollard (Eds.). *German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pp. 11-37).
- Pollard, C. & Sag, I.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Sag, I. & Wasow, T. (1999). *Syntactic theory: A formal approach*. Stanford: CSLI Publications.
- Sells, P. (1998). Structural relationships within complex predicates. In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Williams, E. (1997). Lexical and syntactic complex predicates. In A. Alsina, J. Bresnan, & P. Sells (Eds.). *Complex Predicates*. (pp. 13-28). CSLI Publications.

조세연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1

호남대학교 외국어학부 영어과

전화: (062) 940-5316

이메일: sycho@honam.honam.ac.kr

임경섭

520-714 전남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영문학과

전화: (061) 330-3622

이메일: viclim@hanmail.net